



비어있는 자리

정은/가족치료 연구소장 www.tafamily.net

쌩! 하고 스쳐 지나가는 매운 바람결
 에 빈 몸을 추스리는 나무를
 —보다가 문득 한결한결
 옷가지가 늘어나 있는 조금은 등
 글해져 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.

아! 나무가 옷을 벗으니 사람
 이 옷을 입는구나...

이렇듯 우리는 자연과 상호보완적
 인 관계를 유지하며 삶의 질서를, 지혜
 를 키워 왔구나...

세상이 내 이마, 내 목언저리의 서 *Seon*
 늘함을 덮어주지 않는다. 내 손으로 모
 자를 챙기고, 목도리를 챙기고 흘러내리는 콧물을
 닦아야 한다. 왜 인생이란 감기의 신열을 담은 콧
 물처럼 끈적거릴 뿐이고 마음속의 두통은 더해만
 가느냐고 세상을 향해 원망할 것도 없이 내 마음
 의 욕심들이 감기라는 옷을 입히고 있다는 것을
 깨달을 수 있다면 나와 가족과 이웃의 독감치료는
 사랑과 보살핌으로 어루만질 수 있으리라...

그 애가 격렬한 감정을 폭발시키고, 공부는 할
 수 없었고, 잠도 자지 않으며, 오로지 발작적으로
 빠져 들어갔던 그들의 세계가 학교에 알려졌을 때
 그 애에게 붙은 낙인은 무려 9가지. 이성교제, 음
 성 씨클, 음주, 흡연, 절도, 금품갈취, 도박, 폭력,
 본드흡입...

학교는 이미 그 애를 자퇴라는 형식을 빌어 학
 교밖으로 내 몰았고, 아무도 언덕이 되지 않으
 려는데 대해 그 애는 화를 내고 있었다.

“누가 귀 기울여 주었나요. 어른들은 우리들의



〈무기력, 무책임, 무관심, 무감동, 무예
 절〉의 5무현상을 개탄한다면서 지
 나간 시대를 이야기 하는데 21
 세기 고등학생이 얼마나 고달
 프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누
 라서 들어주었나요. 살펴주었
 나요.”

그 애는 가족도, 학교도, 사회도
 그애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은 채
 굉장한 부담과 압박감만을 강요한
 다는 점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.

어느날 집을 나가신 아버지. 함께 남아
 계신 어머니는 아예 설명을 거부했고, 아버지애
 대한 언급은 금기사항이 되어버린 쓸쓸한 가정.
 그 후에야 부모의 이혼소식을 들었던 그애.

‘그때 손 잡아준 사람이 있었나요. 선생님도
 아니었고 친척도 아니었고 엄마는 내게 관심도 쏟
 을 수 없었고, 오로지 친구들이었다구요. 개네들
 처럼 나를 인간적으로 대해준 사람이 하나만 있었
 어도 이르지 않았을텐데...’

서로의 지향점이 일치할 수 없어 헤어져야 하
 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을 바르게 성장시킬
 수 있는 부모로서의 노력은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
 들었으면 좋겠다.

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한 즐기 빛이 있다고
 한다면 생애초기 6년간 훌륭하고 따뜻하고 쉽게
 사랑하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환경속에서
 안정감을 형성하는 자녀들이라면 어떤 상황에서
 도 자기를 지켜나가리라 믿을 수 있다. **2023**